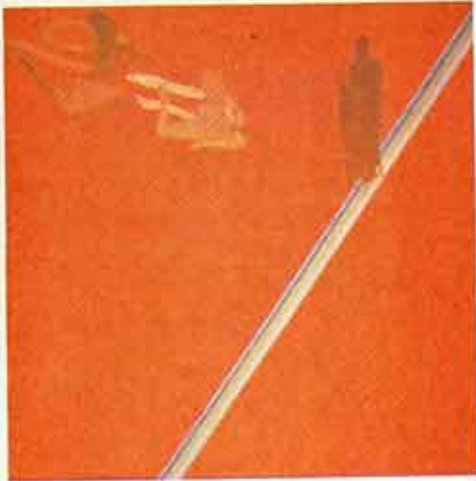




# 佛心있어 더 좋은 '빛고을 미술잔치'

'95 광주 비엔날레  
품품 불교주제작



◇신경호 작 '세계의 불교심'



◇안성규 작 '빛의 메아리'

## 불교정신과 현대미 접목한 작품 눈길

60개국 5백여명 참가... 문화행사 1백10회 '불거리' 다채

예술을 통해 세계가 만나는 '95 광주 비엔날레'에 불교예술인들이 대거 참여, 불심 넘치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광주 비엔날레에서 한국작가로 초대된 중광스님, 권수현, 안성규, 신경호 등의 불교예술인들은 불교의 전통적 소재와 사상을 차용해 현대적 미술형식 속에 끼워넣거나 빈안시켜 '세계속의 한국' '한국속의 세계'를 조화로운 만남으로 이끌어 내는 작품을 내놓는다. 또 박수근, 김관호, 김복진씨 등 고인(故人)의 작품들도 전통 불교정신을 통해 서구인들의 이국취향과 동양적 신비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싹타래 풀듯 풀어줄 것

로 기대된다.

특히 일본 고보 하타나카씨의 작품 <부처에 이르는 세계의 상상한 계단>은 일본 현대미술의 불교정신 수용정도를 알려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씨가 '정보 예술전'에서 큐레이터로서뿐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혼양전>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또 하나의 화제가 되고 있다.

11월20일까지 두달동안 광주 중의공원 문화벨트 일원 71만평 대지에서 '경계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95 광주 비엔날레'는 국제전, 특별전, 기념전, 후원전의 4개 분야에 60여 개국 5백여명

의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행사와 조상현·성창순·산영희씨등 명창들이 들려주는 관소리를 비롯, 민속 농악 무용 연예 음악 발레 등 무려 1백10여회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하루도 빠짐없이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광주 비엔날레'는 지난날의 권위주의와 폐권주의, 대립과 갈등, 폭력과 차별 등을 말쳐버리는 인류화합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는 것은 물론, 불교예술인들이 세계무대로 도약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도광선 기자

◇신경호 작 '세계의 불교심'

###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

그 옛날 나탈을 타고 지나던 대상들의 길을 따라 가 본 한달동안의 실크로드 기행은 아집트를 선두로 요르단, 시리아, 이란 등 중동지방을 거쳐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아로 이어졌다. 피라미드와 �핑크스를 비롯해 여기저기 신재한 유적들을 볼때마다 인류 문화의 위대함에 대해 감탄과 감동은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그러나 자연의 힘에 그리고 인간의 무력에 의해 거의 폐허가 되었다시피한 많은 유적지들을 보며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나 가치가 영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겼다. 중동의 이슬람과 유럽의 기독교간의 교류는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를 꽃피웠으나 종교간의 반목으로 인한 전쟁은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문명의 파괴를 남겨놓았다. 말 그대로 밤에 재는 인류 문화의 잔재가 마치 종교전쟁의 흔적 같아서 착잡한 심상이었다. 어떤 종교든 궁극적 이상은 인간의 영혼에 대한 구원과 자비, 사랑이 아니던가.

### 종교전쟁이 빛은 문명훼손 '착잡'



실크로드 여행길

그러나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과거에도 그려왔고 현재에도 얼마나 많은 분쟁과 희생을 야기하고 있는가. 생존 환경이 다르고 그에 따른 문화와 다양성이야말로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비록 나만의 우려는 아닐것이다. 유목생활을 하며 검은 차도르를 쓴 여인들의 눈도 아름다웠으며 서구화된 젊은이들의 자유로운 활보도 아름다웠다. 피라미드를 보며 인간의 능력에 불가사이를 터키의 파묵칼레에서는 칼숨이 축적된 하얀 산을 보며 자연과 시간의 위대함에 경이로워 했다.

우주속의 조그마한 별인 지구, 그 속의 티끌같은 존재인 인간 그러나 무엇보다 소중한 아름답지 않은 것이 있을듯, 동과 서의 교류인 실크로드 여행을 하며 이국적인 풍경에 취하기도 하고 인간의 위대함에 감탄하기도 했지만 줄곧 나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은 생각은 하나, 과연 순수한 종교란 현실로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었다.

이석주 (서양 회화)



◇신경호 작 '세계의 불교심'

## “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

화려했던 낮만큼이나 소중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으로 다가서는 이름-그랜드 우아한 분위기, 세련된 디자인으로 더욱 편안하게 다가갑니다.

늘 사랑이 넘치는 공간! 그랜드로 오십시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듯 아름다운 꿈이 펼쳐집니다.

###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 침대 전문 회사** 20여 년 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한걸음을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 좋은 품질, 편안한 가격**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체종에 25mm 강철을 사용한 하드 스프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투명한 리스 사용** 과거 다른 브랜드의 페트리스 사용으로 암막을 비롯 전될 수 있으며, 수명이 25배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 다양한 모델** 전문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 GRAND FANTASIA

꿈의 나라를 쓴다  
**그랜드침대**

●본사: 경기 과천시 광탄면 마장2리 180-18  
●전화: 0348-945-2233 / 팩스: 0348-945-9607

### 생활속의 불교 ④

## 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의 마구니

모든 것은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져 있다. 마음이 없다 하면 부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보살도 마구니도 없다.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다. 천국이니 지옥이니,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는 것도 없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불려 들인 것이요, 마음으로 세운 것이다.

부처님의 모습을 보았다.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했다 하더라도 그때의 부처님 모습,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은 마음이 화해서 나타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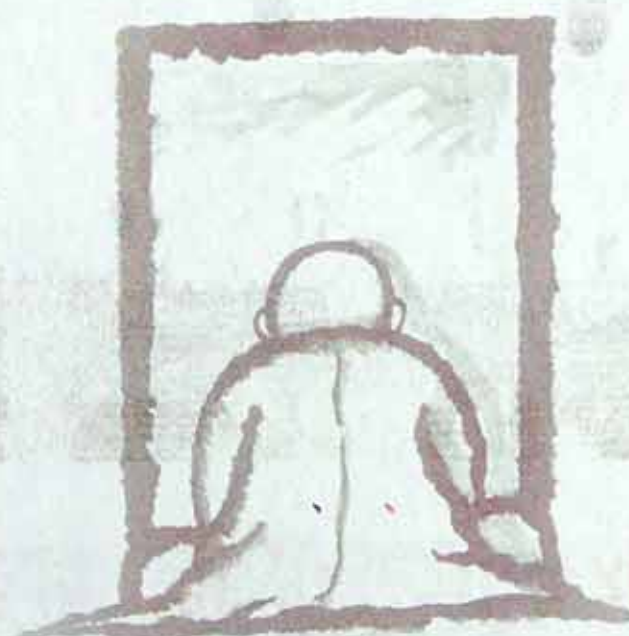
기도 중에 어떤 경계를 보았다. 천신을 만났다 해도 그 또한 마음의 나뭇잎 뿐이다.

마음 공부하는 중에 갖가지 경계가 나타나 유혹을 한다 하는데 그것을 마구니라 하는 까닭도 다만 마음의 나뭇잎이나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가르침인 것이다.

마음자리엔 그렇게 부처도 있고 보살도 있고 신장·용신도 있다. 마구니도 있다. 고로 내가 마구니 마음을 내면 마구니는 있는 것이고 신장·용신이 있다고 믿으면 신장·용신도 있는 것이다.

마음에는 무엇이든 다 있다. 수억 겁을 거쳐오면서 없기 싫기 마음 먹었던 것이 철첩으로 쌓여 있기에 무엇이든 다 있고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무엇이든 다 세워지기도 한다. 꿈 속에서 온갖 경계를 두루 섭렵하는 것. 그것이 마음작용이듯이 보고 듣고 느껴지고 드러나는 일체는 다 마음 먹기에 의한 것이다. 중국의 장차기 나비가 되는 꿈을 꾸고 나서 '내가 나비가 된 것일까, 나비가 내가 된 것일까?' 하고 물었다. 마음의 나뭇잎을 말한 것이다.

지금의 내 모습, 이 모양 이 꼴도 마음이 나뭇잎이다. 남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은 것, 남에게는 숨기고



실은 자신의 어두운 그늘, 그 모두가 내 마음의 나뭇잎이지 다른 그 무엇에 연관된 것이 아니다. 남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남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 우리가 행·불행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에 바탕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러기에 누구나 자기와 똑같은 모습의 부처와 살고, 보살과 살고, 신장과 살고, 자기와 똑같은 모습의 마구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구니가 싫거든 마구니 마음을 녹여야 한다. 불행이 싫거든 불행의 씨앗이 된 마음부터 고쳐먹어야 한다. 남의 미움이 싫거든 내 마음에서 미움을 버려야 한다. 그것만이 바른 길이요, 불법이 알려주는 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 고쳐먹기에 게으르다. 아니, 게으르다기보다는 '내 마음의 나뭇잎' 줄을 잘 모른다. 모르기 때

문에 밖으로 경계에 집착하고 밖으로 남의 탓을 하게 된다. 자신을 바로 보려 하기도, 제 눈의 티끌을 제거하려 하기도 바깥에서 원인을 찾는다. 말하자면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를 감추려고 한다. 특히 어두운 그늘, 남새스럽게 느껴지는 일들은 한사코 감추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마음을 고쳐먹으면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내가 내게 솔직해지면 우선 바깥 경계, 남의 시선에서 편해질 수 있다. 편해져야 내 모습 내 꼴이 바로 보이게 되고 그럼으로써 마음 고쳐먹기는 시작된다.

내 모습, 내 꼴에는 부처 마음이 나뭇잎도 있고 보살살이 나뭇잎도 있으며 마구니가 나뭇잎도 있다. 다 드러내야야 마음공부가 바로 된다.

협찬: 윤 병 창